

협회소식/ 업계동정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 10월27일까지 작품모집

韓國乳加工協會(회장 全應璿)는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촉진과 어린이들의 작문실력 향상을 위해 전국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우유장학금 글짓기대회 작품을 10월 27일까지 공모한다.

글의 제목은 △나는 우유대장 △고마운 우유 △나의 건강과 우유 △우리집은 우유가족 △기타 우유 및 유제품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등으로 2백자원고지 10매내외.

협회는 이번에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새싹회에 심사(심사위원장 尹石重회장)를 의뢰, 최우수상 1명에게는 농림수산부장관 상장과 장학금 30만원을 수여한다.

또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0명에게는 각각 유가공협회장 상장과 장학금 20만원, 15만원, 10만원씩을 장려상 30명에게는 유가공협회장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우유소비실태 조사결과 실무자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유가공협회는 8월25일 협회회의실에서 유업체 홍보 및 마케팅실 무책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유소비실태분석 및 향후 전망탐색을 위한 소비자조사' 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회가 우유 및 유제품의 음용기회 발견과 대국민홍보 방안 탐색을 위해 지난6월17일부

터 7월8일까지 서울부산 등 4대도시와 순천, 안동등 2대중소도시 12세이상 49세미만 남녀1천4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설명과 대국민홍보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발견사항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음료소비행태

• 우유의 가구내 보유율은 증가(56%→68%)했으나 전체 정기배달률은 정제속에 중소도시의 배달률은 다소 증가함.

• 주스음용기회 증가로 우유시장의 잠식우려(우유대체음료로 주스선택률 19%서 25%로 증가)

◇우유정보수준 및 태도

• 우유정보수준 이해경로로 신문·잡지 증가(9%)
• 식사대용의 용도추진 장점부각 - 건강식품에서 기초식량으로 이행추세.

• 우유제품이 메이커별로 다르다고 느끼는 태도가 60%나 차지했으며 지역별로 브랜드 선호경향 두드러짐.

◇우유소비행동

• 전체적인 음용유형은 비슷하나 중학생이하 국민학생층의 음용빈도가 증가한대신 40대는 다소 떨어짐.

◇배달우유에 관한 태도

• 전체 배달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대전은 감소한 반면 광주(36→42%), 순천(41→55%), 안동(33→39%)등은 증가함.

• 전년에 이어 새벽배달선호(96%)는 여전했으며 오후시간배달은 간식기회 증가에 도움이 되나 비중이 더큰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자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

아침식사 대응시에 불리할것으로 예상.

- 격일배달의 주된 반대이유는 신선도 하락(48%)과 음용기회감소(38%)로 나타나 냉장고 보관에 따른 격일배달시행등은 현시점에서 설득력이 약함.

◇우유구입 및 보관에 관한 태도

- 전체적으로 수퍼보다 배달구입을 더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76%)23%, 국민학생층, 중소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음.

- 전체의 85%가량이 우유를 냉장고에 보관할때 신선도 유지는 3일 이내까지라고 응답했으며 전체67%가 우유를 냉장고에 4~5일 보관시 이상이 없다는 견해를 부정.

◇발효유 음용태도

- 전체42%가 발효유를 주3회이상 음용하고 주음용층은 국교생, 주음용시간대는 점심과 저녁사이(41%)였으며 성인은 주로 아침과 점심사이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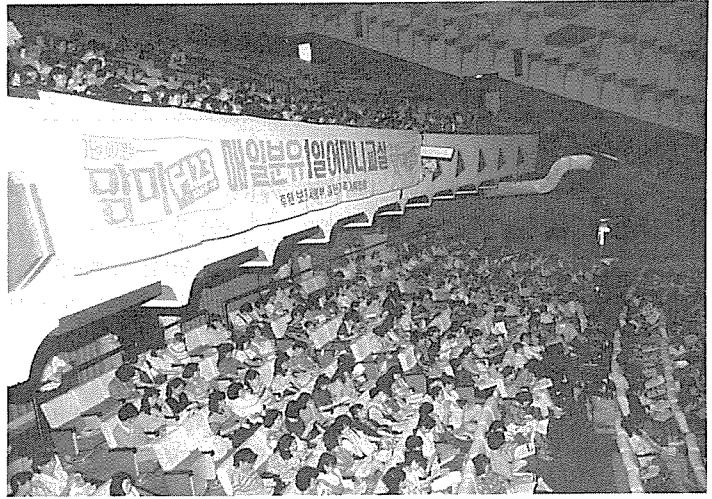
- 입수형태는 직접구입(53%)이 가장 높고 배달음용의 경우 30대가 40%로 많음

◇폐우유팩 수거태도 및 행동

- 전체 소비자의 78%가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분리수거는 22%에 불과함.

- 우유공팩 재활용인지도는 76%(특히 30대는 85%)이며 국민학생층은 인지도가 39%로 낮음.

- 우유공팩 분리수거의 효율적 방안으로는 소비자의 자발적노력(32%), 언론기관 캠페인(18%), 우유제조회사 활동(13%), 교육 및 계몽(10%) 순



매일어머니교실, 2천회돌파—연인원70만수강

국내최초의 임신, 출산, 육아정보 전달프로그램인 매일유업·주의 '매일어머니교실'이 지난 9월24일 서울YWCA대강당에서 열린 행사로 2천회를 기록했다.

매일유업이 임산부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母子보건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75년 4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한 '매일어머니교실'은 17년동안 매년 1백20회가량 열려 1회평균 3백50명, 연인원 70여만명이 수강했다.

75년당시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의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임산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시작한 매일어머니교실은 그동안 산부인과 및 소아과 교수, 전문의, 가족계획전문가등을 강사로 초빙, △가족계획 △순산의 비결 △기형아 출산예방 △신생아 질환등을 중점 강의하고 참석자들에게는 아기수첩, 산모책자, 임신 및 육아에 관한 책자 4권을 무료로 배포했다.

매일유업은 당초 서울과 지방대도시 중심으로 개최하던 어머니교실을 82년부터는 전국 읍·면단위까지 확대, 현재는 서울의 경우

YWCA대강당에서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지방대도시는 두달에 한번, 중소도시는 연2회, 기타지역은 분기에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와함께 88년 4월부터는 임산부와 8개월미만의 아기를 가진 엄마라면 누구나 엽서한장 또는 전화한 통화로 매일어머니교실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각종 책자와 정보자료를 무료로 보내주고 있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가장 숭고한 일인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엄마와 같이 나누고 건강한 산모와 튼튼한 2세가 태어날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뒤 계속실시하고 있는 매일어머니교실은 그 공익성을 인정받아 지난 77년 보사부장관표창, 78년 대통령상, 86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바 있다.

매일유업측은 앞으로 강의내용을 임신중 건강관리, 순산의 비결, 모자보건관리 등으로 한층 강화하고 개최지역 및 행사횟수도 늘려 많은 임산부들이 그 혜택을 받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으로 응답.

면역성분 락토페린 첨가한
「남양분유로얄1·2·3」출시

남양유업(대표 洪源植)은 최근 모 유속의 면역성분인 락토페린을 첨가한 「남양분유 로얄 1·2·3」(사진)을 출시했다.

락토페린은 극히 최근이야 그 존재가 밝혀진 모유내 면역성분의 하나로 병원체에 대해서는 항균작용을 하며 인체에 유용한 유산균에 대해서는 전혀 작용을 하지 않는 선택적 효능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 연구팀이 오랜 연구끝에 개발한 「남양분유 로얄 1·2·3」은 락토페린 외에도 출혈예방에 중요한 비타민K, 생리활성물질인 리놀레닌산 등도 보강했다.



이 제품은 아기의 성장단계에 따라 3단계로 먹이게 되었다. 권장소비자 가격은 4백g 한켤에 2천8백50원.

매일유업, 특수조제분유
「매일SF1,2」 개발 시판

매일유업은 최근 설사용 특수분유

인 「매일 SF-1」과 우유의 알레르기 및 소화장애의 식이요법용 식물성 아기분유인 「매일 SF-2」(사진)를 각각 개발, 시판에 나섰다.



매일 SF-1은 아기의 설사를 빨리 멈추게 하고 소화기능 및 체중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식이요법용 아기분유이다.

또 매일SF-2는 아기가 체질적으로 모유나 우유가 맞지않아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만성적인 설사를 하는 경우 적합한 식물성분유이다.

연세우유, 牙山에 제2공장
독립법인 주·연세유업 발족

연세유가공사업소는 忠南牙山에 제 2유가공공장을 신설, 내년3월부터 기존의 市乳외에 발효유와 두유를 생산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세유유측은 지금까지 연세대 재단에 속해있던 우유사업부를 독립법인인 (주)연세유업으로 발족시켜 그 공장완공과 함께 일반유업체와 본격 경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0년말 착공해 3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3월 완공예정인 아산 제2공장은 대지 1만8천평에 하루 처리능력이 3백(原乳기준)으로

기존의 서울공장의 2배수준이다.

유제품 통합상표 「그린빌」
斗山, 9월1일부터 사용

斗山종합식품(대표 安基瑩)은 최근 우유·치즈등 유제품류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통합상표를 「그린빌」(Green Ville)로 최종 결정하고 9월1일부터 시판되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의 두산우유, 두산치즈의 명칭은 각각 그린빌우유, 그린빌치즈로 바뀌었다.

푸른 마을이라는 뜻인 「그린빌」은 영어의 Green과 Village의 합성어로 자연의 신선함과 풍요로움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斗山의 경영의지를 담고있다.



두산은 기존의 우유와 치즈외에도 앞으로 개발, 시판될 모든 유가공제품에 「그린빌」상표를 사용할 방침이다.

종합소식

酪振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原乳가격이 유업체와 낙

농가, 학계 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최근 원유가격은 현재 행정지도 가격으로 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낙농진흥사업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농림수산부 장관에게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4장 20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유와 원유검사기관을 축(낙)

협으로 일원화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난뒤 경제장관회의 등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친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낙농진흥법개정안은 지난 90년 1월 1차 입법예고된바 있으나 낙농진흥사업회 설립등 일부 조항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개정이 유보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1차입법예고안의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한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급식우유가격 인상 9월1일부터 1백50원

학교급식우유 가격이 9월1일부터 1백50원(200ml팩 기준)으로 인상됐다.

농림수산부는 유가공업체의 어려움을 덜고 학교급식우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가격을 1백46원에서 1백50원으로 2.7%인상, 9월1일부터 적용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유업체들이 바라는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 실정이다.

골다공증 예방엔 조깅이 최적운동 =우유등 유제품 많이 먹으면 發病확률 낮아=

폐경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는 조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유등 유가공품을 많이 섭취한 여성일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양대학교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張有慶 李보경교수팀이 최근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 폐경기클리닉에 내원한 50-60대 여성 43명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분석한 「폐경후 여성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규칙적으로 조깅을 하는 여성의 요추 골밀도는 평균 128.4% Age Matched BOD(골밀도)로 조사대상자의 평균 골밀도 93%보다 훨씬 높았다.

이밖에 에어로빅을 하는 여성(1백3.7%), 등산(1백1.6%), 산책(1백%)등 순으로 조사됐다.

% Age Matched란 요추골밀도의 절대값의 단위인 단위면적(cm²)당 골질량(g)을 성별, 연령, 체중 등을

고려해 환산한 값을 말하는데 이것이 높을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하지 않는 여성의 골밀도는 88.7%로 운동을 하는 여성의 골밀도 1백2.2%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또한 우유를 매일 마시는 주부의 골밀도는 1백4.8%로 나타나 우유 등 유가공품에 함유돼있는 칼슘성분이 골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張교수는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척추뼈, 손목뼈, 어깨뼈 등이 부러지는 증세를 나타내는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칼슘, 비타민 등 영양섭취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들은 60대의 경우 30%, 70대의 50%가 골다공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통신 92.9.30>